

줄리 비숍 호주 외교부장관

신임 주한 호주대사 임명

2016년 11월 9일

오늘 제임스 최 신임 주한 호주대사 겸 비상주 북한대사를 공식 임명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해에 기반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호주의 네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양자 교역 규모는 2015년 기준 360억 달러에 이릅니다. 2014년 한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양자 교역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 재계에 큰 결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교육과 관광 부문에 있어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G20, APEC,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므타(MIKTA) 협의체 등 국제 다자회의에서도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양자 관계 발전은 크게 제약 받고 있습니다. 호주는 북한의 인권 위반과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유엔 기구를 통해 북한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호주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관으로 근무해 온 제임스 최 신임 대사는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뉴욕에 위치한 유엔 주재 호주 상주대표부를 거쳐 주 덴마크 호주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최 신임 대사는 호주 외교통상부 본부에서도 재외동포국 심의관을 비롯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에는 호주 총리 및 내각실 수석 보좌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실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Unofficial Translation]

최 신임 대사는 호주 시드니대학교 경제학 및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신임 대사의 공식 부임은 201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2013년 부임 이래 한호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해주셨던 윌리엄 패터슨 전임 주한 호주대사에게 사의를 표합니다.